

‘난공불락’ 베트남 결제시장, 韓 중기가 뚫었다

(알리엑스)

카드 결제서비스사 알리엑스

일본 최대 통신그룹 NTT 등 세계 주요 기업이 진출하려다 번번이 실패한 베트남 시장을 국내 중소기업이 뚫었다. 토종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 알리엑스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해 공동 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에 진출한 해외기업 중 유일한 사례다.

설립 연도	2013년
사업 내용	베트남에서 비현금 결제 인프라 구축
직원 수	한국 인력 50명 베트남 인력 100명
매출	2020년 기준 4억원 2021년 전망치 100억원 (올 3월 베트남 사업 시작)

은행마다 각각 결제 단말기 운영
NTT 등 진출 번번이 좌절

8년 공들인 ‘동반자 전략’으로
한국형 모델 적용한 1호 사업자

“병원·학교 등 신규 가맹점 발굴
2025년까지 100만대 보급할 것”

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베트남에선 가
맹점 확대가 더딘 상황이다. 새로운 결제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실제 적
용에도 제약이 많다.

알리엑스는 여기에 착안해 공동 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을 추진했다. 알리엑스
가 제공하는 단말기와 결제 인프라를 활
용하면 하나의 단말기로 다양한 은행의

비현금 결제가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의
의지도 강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카드 결제 문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베트
남 국민의 외국 여행이 늘면서 카드 결제
경험도 축적되고 있다. 베트남의 가파른
경제 성장과 젊은 급여 소득자 증가가 맞
물리면서 카드 결제 소비자층도 두터워
지는 추세다.

“시장 침입자 아닌 동반자”
알리엑스는 오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
해 베트남 정부가 해외 기업의 단기적인
사업 제안보다 베트남 기업과의 지속적
인 협업과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사진)
는 “베트남 현지 은행의 사업 영역을 침
범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준 게 사업
승인을 받는 데 유리했다”며 “공동 단말
기로 확보한 가맹점에 대해 특정 은행에
선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도 시장에서 빠른 신뢰를 얻은 배
경”이라고 말했다.

알리엑스는 2019년 베트남 국책은행인
비에틴은행, 민간 은행인 사롬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코
로나19 발생으로 일정이 지연되긴 했지
만 올초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고 3월 정
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베트남투자개발
은행과 아그리은행 등으로 거래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는 신규 가맹점 개발이다.
이미 베트남 운송업체인 비나선과 계약
을 체결해 1000대의 택시에 단말기를 설
치했다. 연내 6000대까지 설치 단말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병원, 약국, 학교, 주
유소, 소형 집화점 등 신규 가맹점 발굴
에도 주력하고 있다. 알리엑스는 올해 20
만 대 이상의 공동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
고 2025년까지 베트남 전국에 100만 대
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은정 기자 kei@hankyung.com



알리엑스는 2016년 10월 베트남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비현금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안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알리엑스는 2019년 베트남 국책은행인
비에틴은행, 민간 은행인 사롬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코
로나19 발생으로 일정이 지연되긴 했지
만 올초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고 3월 정
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베트남투자개발
은행과 아그리은행 등으로 거래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는 신규 가맹점 개발이다.
이미 베트남 운송업체인 비나선과 계약
을 체결해 1000대의 택시에 단말기를 설
치했다. 연내 6000대까지 설치 단말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병원, 약국, 학교, 주
유소, 소형 집화점 등 신규 가맹점 발굴
에도 주력하고 있다. 알리엑스는 올해 20
만 대 이상의 공동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
고 2025년까지 베트남 전국에 100만 대
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은정 기자 kei@hankyung.com

“반년 만에 2만족 팔린 ‘젤 갈창’ 통증 호소한 소비자 덕에 개발”

옴통기 수제와 업체 주아나운

탄성·내구성 좋고 세탁도 가능
태국 등 동남아로 수출 추진

“신발을 신을 때 발이 너무 아파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해 하반기 2만족 판매량을 기록
한 소재기능성 깔창 ‘젤클라우드’가 탄
생한 계기가 된 소비자의 한마디다. 이를
만든 수제화 회사 주아나운의 윤선영 대
표(사진)는 “젤클라우드의 고객의 소리
가 모여 완성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5월 설립된 주아나운은 본래 평
범한 수제화 소평물이었다. 학창시절부
터 신발에 관심이 많았던 윤 대표가 성수
동에서 구두 제작을 공부한 뒤 자신만의
구두를 팔아볼 생각으로 창업한 회사다.
막상 연 소평물은 제자리 성장을 반복
했다. 구매자가 있긴 했지만 수많은 소평
물과 비슷한 성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윤
대표는 꾸준히 판로를 늘리며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그러던 중 윤 대표의 눈에 띈 것이 소평
물에 올라온 문구의 글 하나였다. “구입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발이 앞으로 쏠리
는데, 이를 해결할 만한 깔창을 같이 팔아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런
문구는 처음이 아니었다. 윤 대표는 그동
안 무심코 지나친 문구의 내용을 종합해가
며 소비자를 위한 착화 보완 제품을 연구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젤로 만든 깔창인
젤클라우드가 나왔다.

2014년 하반기 내놓은 젤클라우드
는 폴리우레탄 젤 특유의 성질 때문에 탄성

과 내구성이 강했다. 윤 대표는 “젤이
때문에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
이고 위생적”이라며 “깔창 뒷면의 필름지
를 벗겨낸 뒤 신발 뒤꿈치에 부착하는 방
식으로 쓰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다”고 했다. 신발의 불편한 착화
감과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은 당연한 기
능이었다.

이 같은 강점들을 인정받아 젤클라우
드는 2014년 서울국제발명 전시회에서 동
상을 수상했다. 소비자 사이에서도 입소
문이 돌며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홈쇼핑 입점에 성공해 전년
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매출을 달성
했다.

여성용 제품만 존재하던 젤클라우
드를 남성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윤 대표
는 “가을쯤 남성 버전 젤클라우드를 내
놓기 위해 전용 금형을 새로 제작 중”이라
고 했다. 베트남, 태국 등으로 수출도 추진하
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성신양회, 1300억 규모 친환경 시설투자

2027년까지 생산설비 개조
이달중 ESG경영위원회 신설

국내 시멘트업체인 성신양회가 앞으로 7
년간 환경 관련 시설투자에 총 1300억
을 투입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
조) 경영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성신양회는 올해 350억원 투자를 시작
으로 2027년까지 시멘트 생산시설의 예
열실을 개조하고 대기 환경설비를 설치
하는 등 친환경 설비를 신설·개조할 예
정이다. 이를 통해 시멘트 제조 때 필요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재
활용하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
신양회는 순환자원의 유연탄 대체 비율
을 현재 2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
로 했다. 이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연간 500억원의 경영실적 개선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고 성신양회 측은 설명했다.

성신양회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기반으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고열을 활용해 수소를 생
산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등 친환경 관련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신양회는 지난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수처리업 및 환경 정화, 복
원 관련 제반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 환경
관련 사업 목적을 세분화했다. 또 이달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추진
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설비
투자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환경 관련 투
자를 통해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3종 출시

LG하우시스가 7일 인조대리석 ‘하이
막스-오로라’ 시리즈 신제품 3종을 내
놴다. 오로라 에크루-프로스트-미드나
잇 세 가지로 국내외 인조대리석 시장
에서 대체로 떠오른 선명한 ‘베인’ 나뭇
잎 결 같은 흐름 무늬를 자연스럽게 표
현한 것이 특징이다.

오로라 에크루는 따뜻한 느낌의 백
색 계열이며, 오로라 프로스트는 빛이



은은하게 투과되는 반투명 제품이다. 오로라 미드나잇은 검정 계열로 어두운 나무 재질이나 금속 포인트가 들어간 가구와 잘 어울린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중기부, 제조업 활성화 세미나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
회에서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연구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정책연구회는 중소기업 활성
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선 노민선 중기부 미래전
략연구단장이 코로나19 이후 중소제조
업의 고용, 창업, 경영활동 변화를 살펴
보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중소제조업 활
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비대면 스타트업’ 400개 육성

중기부 등 12개 부처 협업
선정기업엔 최대 1.5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12개 부처가 협
업해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이 사업을 신설
했다. 올해 예산은 300억원으로 책정됐
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
출 효과 등을 인정받아 추가경정예산으
로 30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올해 유
망 창업기업 400개를 선정해 총 600억원
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12개 부처가 협업해 추진한
다. 각 부처가 소관 분야 창업기업을 선

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연계 지원하는 방
식이다. 부처별로 보유한 비대면 분야 전
문성을 활용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
안으로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을 지원한다. 이후 기술·인증·판로 등 분
야별 소관 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분야별 협업 부처는 △의료·보건복지
부·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교육부·산
업통상자원부 △생활소비·농림축산식
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
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기반기술·특허청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표는 이달 27일까지 K-스타트
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제1회 에듀윌 29초영화제

2021. 3. 16(화) ~ 4. 30(금)



주 제 | “[]은 합격이다”
합격, 공부, 도전,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접수 기간 | 2021.03.16.(화) ~ 2021.04.30.(금) 자정까지

출품 자격 | 제한 없음 (국내외 누구나)

부 문 | 제한 없음 (통합)

시 상 식 | 2021년 5월 중 (추후 공지 예정)

접수 방법 | 29초영화제 홈페이지 (www.29sfilm.com) 온라인 출품

총 상 금 | 2,000만원

출품 규격 | 29초 길이의 모든 영상 (인트로, 크레딧 제외)
· 해상도 : 1920x1080
· 프레임 : 29.97fps (권장), 24fps
· 포맷 : mp4 (권장), mov, mpg, avi, wmv 등 표준코덱 지원

주 최 | eduwill 한국경제신문

주 관 | 29초영화제사무국

문 의 | 전화 02-360-4029, 이메일 director@29sfilm.com

홈페이지 www.29sfilm.com